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히7:1-10

신앙 생활은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재료가 필요하시지 않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강단과 훈련을 통하여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마음에 남아 있게 되므로 자연적으로 기도가 되고 마음에 확정이 됩니다.

6일 동안 승리하고 정복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는 중에 평생의 말씀을 받으면 이제 내가 어디를 가야 할 것인지가 확실해집니다. 목표 지점이 나오고 목적도 잡히게 되는데 목적은 하나님의 소원일 것이고 목표는 땅 끝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평생의 말씀이 이루지도록 필요한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지속으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어디까지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어져 갈 것인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주일을 놓치면 6일을 놓치는 구조가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답이 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대일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이 됩니다. 여전히 다른 환경과 조건 그리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전과는 생각이 많이 다르게 됩니다. 자신의 결심과 결단으로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열리고 보이므로 되어지는 고백을 바탕으로 한 결심을 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1. 직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1) 레위인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14장의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 나타나신 멜기세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절대 평강이요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할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2)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셨다는 말이며 세상에는 그와 관련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역사도 없고 누구에서 받는 생명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항상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설명합니다.
3) 4절 아브라함이 십일 조를 이 사람에게 바쳤다면 그는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는 것이며 6절 그런데 레위인도 아닌 멜기세덱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서 십일 조를 받았으니 그가 과연 누구겠냐는 것입니다. 8절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십분의 일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같은 십일 조를 드려도 의미가 다르고 같은 십일 조가 아니고 더 높은 의미의 십일 조라는 설명입니다.
4) 9절 레위인들도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민18:26) 십일 조의 십일 조를 여호와께 드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십일조를 드렸다는 이 사상을 바탕으로 이 법이 정해졌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레위인들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5) 지금까지의 설명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의 의는 세상의 모든 불의를 깨고도 남을 절대적 의이며 그의 평강도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절대 평강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사람을 불안하게 해도 그리스도만 들어오면 그 불안은 반드시 무너지는 절대 평강인 것입니다.

6) 그래서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셨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하십니다. 사람 제사장은 아무도 항상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세상의 역사도 없는 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 하고 과정과 여정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7) 그리고 죽을 자들이 늘 받던 십일 조를 산다는 증거를 받은 자신이 받으므로 같은 십일 조라도 의미를 달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살아 있는 십일 조가 되게 해 주셨다는 뜻일 것입니다. 또 하나 그는 믿음의 조상 곧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십일조를 받은 사람이요 이 원리 때문에 레위인도 십일조의 십일조를 드리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의미와 제도를 새롭게 하는 기준이 된 분이었습니다.

8) 히6:12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 이 말씀도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 나라의 제도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본문은 제사 직분이 바뀌면 율법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율법이 규정한 제사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9) 율법이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안에 규정된 제사가 사람을 저주에서 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문에서 보아야 할 것은 제사 의식이 아니고 제사 직분이 바뀌면 …. 이라고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의 직분이 기준이라고 하십니다.

10) 레위인들처럼 죽을 자의 신분을 가진 자들의 제사장 직분과 산다고 증거를 받은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천지 차이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차이며 반드시 죽을 자와 절대로 죽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릴 자의 신분과 직분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11) 그러므로 제사의 직분이 레위인에서 멜기세덱 곧 그리스도로 바뀌면 거기에 관련된 법도 다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말하면 행위로 받던 구원이 믿음으로 받고 짐승을 잡아 피로 드리던 예배가 그냥 그의 언약의 피를 잡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12) 그러므로 세상은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이 바뀝니다. 지금도 바뀌고 있고 마지막 그 날에도 어떤 인간도 상상하지 못하게 모든 것이 다 바뀔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24:29-30)

13) 오늘 우리가 이 분을 만나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할 의의 왕이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필요한 절대 평강의 왕입니다. 이 언약을 누리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할 것입니다. 평강이 들어온 한나를 보면 압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와서 절을 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며 천지 개벽을 보고 누구나 황제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 세상의 모든 제도는 그가 중심이 되어 돌아갑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시고 뜻대로 하십니다. 이 놀라운 언약의 핵심을 오늘 우리가 만나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고 언약을 잡는 날이 되길 바라며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